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3. 31.(일) 11:00,  
(지면) 2024. 4. 1.(월) 조간

배포 2024. 3. 29.(금) 오후

## 봄 나들이철 맞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

- 4. 1.(월)부터 4. 12.(금)까지 12일간 148척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나들이철을 앞두고, 4월 1일(월)부터 4월 12일(금)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\*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.

\* 전국 연안여객선 102개 항로 152척 중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4척 제외

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\*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·설비\*\* 관리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, 선내 방송시설과 계시판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. 또한,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과 선내 비상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.

\* 지방해양수산청(해사안전감독관), 운항관리자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, 해양경찰청 등

\*\* 선체, 갑판, 조타, 소방, 구명, 항해, 통신·전기, 기관, 조명설비 등

특히,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안전운항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, 이번 점검에서는 레이더, 통신수단, e-내비게이션 등 항해·통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.

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, 늦어도 본격적인 봄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5월 1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따뜻한 봄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유윤진 (044-200-5738)



< 구명조끼 점검 >



< 여객실 화재경보기 점검 >